



자스민, 어디로 가니?

글·그림 김병중

강아지가 가르쳐 준 삶

‘화첩기행’을 쓴 화가 김병중 서울대 교수가 애완견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에세이 ‘자스민, 어디로 가니?’를 펴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이별은 더 힘든 법이다. 작가는 16년을 함께한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죽은 후 해소되지 않는 슬픔을 경험했다. 결국 ‘더 이상 잡문을 쓰지 않겠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애완견인 ‘자스민’과의 첫 만남부터 소중한 순간들을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되짚어가며 글로 담아냈다. 작가는 함께 산에 갔던 이야기, 자스민의 버릇, 자스민과 아이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김병중은 작은 강아지 자스민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새삼 추억하게 되고, 또 새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가르쳐준 삶의 진실’에 서서히 눈을 뜨게 된다. <열린문·1만2800원> /김경민기자kki@



말로와 드골

알렉상드르 뒤발 스탈라 지음

말로와 드골의 우정

뛰어난 역사적 통찰력으로 오늘의 프랑스를 일군 샤를 드골, 중국 혁명을 그린 소설 ‘인간의 조건’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앙드레 말로, 프랑스와 세계의 운명을 바꾼 두 역사적 인물의 위대한 우정을 다룬 ‘말로와 드골 : 위대한 우정의 역사’가 번역 출간됐다.

지금까지 출판된 기록이나 증언에 의하면, 드골과 말로의 관계는 불균형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상관이었던 드골이 항상 주도권을 쥐었고 말로가 그 뒤를 떠받쳤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알렉상드르 뒤발 스탈라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했다. 그는 드골과 말로의 관계가 위계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상호주체성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라고 보고 있다.

<연암서가·2만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사랑한 적 있나요

열애를 읽는다

이화경 지음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아흔 살이 되는 날, 나는 깨끗한 처녀와 함께 하는 뜨거운 사랑의 밤을 나 자신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아흔 살 할아버지, 깨끗한 처녀, 뜨거운 사랑의 밤,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 너무도 생경스러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들인 한 문장 안에서 요동친다. 첫 문장을 여러 번 곱씹어 읽어봐도 단박에 이해하기 힘들다.” (‘열애를 읽는다’ 중에서)

도발적인 제목이 눈길을 끈다. ‘열애를 읽는다’, 가볍고도 흥미로운 인스턴트식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열애’라니. 그 제목이 주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랑을 읽는다’로 붙여졌을 것 같다.

그러나, 아마저도 다소 불온하다. ‘열애를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을 훑쳐본다는 것이 아닌가. 열애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다소 금기적이며 탐미적인 사랑의 모습은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광주 출신 이화경 작가가 펴낸 ‘열애를 읽는다’는 가브리엘 G. 마르케스의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에서 에밀 졸라 ‘테레즈 라캥’까지 사랑의 맨얼굴을 들여다본다. “독한 사랑이 그리울 때 다시 꺼내든 세기의 소설들”이라는 다소 긴 부제가 붙은 책에는 모두 11권의 소설 속 사랑이 담겨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렇다. ‘백년의 고독’(1982년 노벨문학상)으로 유명한 멕시코 출신 가브리엘 G. 마르케스가 일흔 일곱에 펴낸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에서 읽었던 한 줄의 문장에 단단히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노년의 마르케스가 선택한 주제는 아흔 살 노인과 열네 살 소녀의 사랑이었다. 나이를 초월해 소녀와 사랑을 나누는 아흔 살 노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아마도 사랑은 그런 것인 모양이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만한 사건(계기)은 ‘사랑’ 외에는 없을지 모른다. 사랑 때문에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상태는 운명을 강제한다. 그러므로 열병처럼 찾아와 삶을 바꿔버리는 열애는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다.

한 문장에 매혹된 저자는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연애소설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고전이 돼버린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부터 전후 독일의 대표적 작가 한스 에리히 노삭의 ‘늦어도 11월

가브리엘 G. 마르케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에밀 졸라 ‘테레즈 라캥’

11권 소설속 사랑 이야기

에는’, 터키가 자랑하는 위대한 작가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 프랑스 심리소설의 대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연인’까지 망라한다.

여기에는 첫사랑을 노래한 소설부터 지경, 간통, 불륜을 다룬 작품까지 파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소원도 부부로 살아가다 낯선 남자에게 끌리는 유부녀, 놓쳐버린 사랑을 잊지 못해 그녀의 물건을 수집하는 남자, 적군의 소녀를 사랑하다 죽을 앞에 선 군인까지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이다. 그 파격은 우리들의 민낯 이면에 감춰진 욕망과 감정의 또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책에는 11편의 소설 외에도 사랑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가 담겨 있다. 철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학 등 사랑과 관련된 담론이 섞여든다. 감정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 현대인의 병에 주목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일본의 사상이 가라타니 고진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매개로 다채로운 지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저자는 인생에서 놓쳐서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도 생존에 지장은 없지만, 사랑이 없으면 생존을 가지 있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물을 차례다.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사랑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중앙 M&B·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88만원’ ‘삼포’...시간으로 가두지 않는 세대



세대란 무엇인가?

울리게 유라이트·미하일 빌트 지음

연금문제, 일자리 문제, 정치적 사안 등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문제의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대’다. 오늘날 세대는 계층, 성별 등과 함께 하나의 범주로 부상하는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다.

함부르크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원 울리게 유라이트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교수 미하일 빌트가 펴낸 “세대란 무엇인가”는 향후 한국 사회와 전 지구적 상황을 가능할 수 있는 세대 문제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세대’는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을 제공하고 이를 분석하는 입장을 만들어낸다. 한국도 최근 일련의 선거에 있어 ‘세대 갈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대중매체는 발 빠르게 세대 현상을 포착해 원인 등을 파고들고 있는데 비해 학문적 범주로서 세대가 지닌 잠재성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미진하다. 저자들이 독일의 경우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지만, 세대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공통 관심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은 세대를 다루는 데 있어 생물학적 이해나 출생 연도와 같은 시간적 공통성에 세대를 가두지 않는다. 그보다 특정 역사적 사건에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을 주목하는데, 이들은(서로를 알든 모르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고 본다. 또한 그 경험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도 38세대를 비롯해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좃북세대 등 다양한 세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자 입장에 따라 ‘편의적으로’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울·4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사람과 세상이 담긴 공간, 집



집에 들어온 인문학

서윤영 지음

건물, 그 중에서도 ‘집’은 우리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건축 칼럼니스트 서윤영씨가 ‘집에 들어온 인문학-사람과 세상이 담긴 공간, 집을 읽다’를 펴냈다. 저자는 집의 여러 측면 가운데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의 총체적인 생활과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1부는 ‘집’에 대한 이야기다. 도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아파트에 대한 역사와 현상들을 살펴보고 온돌, 마루를 특징으로 하는 한옥 등 전통 주거지가 왜 보존되지 못하는지 이야기한다.

집 이야기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집값이다. 저자는 왜 우리는 현대판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지, 집의 순환은 어디서부터 막혀 버렸는지 분석한다. 또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고시원을 비롯해 옥탑방, 오피스텔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형태의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성당, 공영, 병원, 백화점 등 집 밖의 건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준다. <들녘·1만2000원>/김미은기자 me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개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